

[사회]

기능올림픽 입상자들 장성 남면서 봉사 활동



20일 오후 장성군 남면 자풍마을에서 광주기능선수회 회원들이 농기계, 가전제품 등을 수리해주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 위해 쓰는 기술 너무 행복”

“어렵게 배운 기술을 ‘남’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일 오후 장성군 남면 자풍마을은 웅장 소리와 망치 소리로 떠들썩했다. 주민들의 3분의 2가 60~70대 노인들로 이뤄져 있는 이 마을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가 들렸다.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는 뜰겨진 농기계와 방충망이 널려 있었다.
국제기능올림픽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광주지역 기능인들로 구성된 (사)광주기능선수회(회장 강자원) 이 남 자풍마을을 찾은 회원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농기계수리에서 미용, 전기, 오피스 등을 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광주기능선수회는 50여 직종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8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원봉사단체. 자

농기계 수리서 미용까지 마을에도 모처럼 활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매년 한 차례씩 한계 마을을 선정해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 이장 백동규(63)씨는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 쉬지 않고 무료로 마을 전체를 수리해주는 정성에 감동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날 수리한 방충망도 100개가 훌쩍 넘었다. 거의 전 주민의 방충망을 갈아 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문을 새로 만들어주거나 집안 전체의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해주고, 수년간 움직이지 않은 농기계를 고쳐주는 등 이들의 재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집수리를 해준 후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다’며 건네주는 음식을

받을 때의 느낌은 회사서 돈을 받고 일할 때와 전혀 다른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기술 밖에 없는데 이런 남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기쁜 일이지요.”
국내 최초로 국제기능올림픽 냉동기술 부문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정동지(26)씨의 말이다.
창립 이후 8년동안 광주·전남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지만 가장 고민되는 점은 역시 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00여만원 가량의 지원비가 나오면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광주기능선수회 강자원(52) 회장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가능 수준을 과시했던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주민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성기자 kps@kwangju.co.kr

청산가리 더미 위 거주 나주 덕음마을 주민들 “암 사망·두통” 이주대책 호소

폐금속 광산지역인 나주시 공산면 덕음마을 주민들이 청산가린 청화광미 위에서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다며 이주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덕음마을에 거주하는 24가구 46명의 주민들은 또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도 원인 모를 두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8년 개발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은 금과 은을 생산해오다 지난 1989년 폐광됐다.
한때 100가구에 달했던 덕음마을 주민들은 금 채련에 사용된 청화광미(청산가리) 더미 위에 집을 지은 채 수십년을 살아왔다.
특히 덕음마을은 나주시가 과거 산자부 지원금 68억여원을 받아 시행한 ‘광해(鑛害·광산으로 인한 공해)방지사업’에서 제외돼 이주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시는 단지 2006년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덕음마을 안에 있는 광미 적치장에 대해서만 중금속 오염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당시 나주시가 사업구역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서울대 농업과학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청산가리 원료인 시안(CN)이 기준치 2mg/kg 보다 656배가 많은 1312.50mg/kg이 검출됐으며, 아연(Zn)도 기준치 300mg/kg보다 56배가 많은 1만6972mg/kg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몇년간 주민 5명이 각종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살아있는 사람들도 원인 모를 두통과 손저림 증상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오늘 광주시 호남 첫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배심원 후보자에 예정명부에 등록된 6천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을 출석하도록 해 배심원을 선정하고, 공판은 오후 2시부

터 21회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피고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딸이 청일거리다며 목졸라 숨지게 한(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여·20)씨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장기간 언어폭력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

했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왔다.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공공장소에서도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심지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빗댄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연희스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for April 21st. Includes a temperature table,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forecast table.

오늘도 초여름 날씨 내일·모레 비올 듯

4월의 셋째주 휴일인 20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5.2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순 25.2도를 최고로 장성·구례 24.6도, 광주 24.4도, 순천 24.2도를 기록했다. 경기도 부천시 31.6도를 기록, 울릉도 전국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초여름 날씨 21일까지 이어지다가 22일~23일 밤 비가 내린 뒤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 21일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상된다.
한편 주말인 지난 19일 낮 최고기온은 순천 27.6도, 광주 27도, 해남 24도, 완도·고흥 22.5도 등으로 평년보다 최고 8도나 높은 초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장필성기자 kps@kwangju.co.kr

무등산 산나물·약초 채취 6월말까지 집중 단속
“싱그러운 산나물과 약초, 야생화 눈으로만 보세요”
광주시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산나물, 약초, 야생화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공원 관리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한창 성장하는 취나물, 두릅, 원주리, 야생화 등이 마구 채취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연 공원에 따라 무등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 식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수신).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d “재혼반 11년!” (Remarriage after 11 years!). Features a couple's photo and text describing a real estate agency's services.

Advertisement for “미도” (Mido)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a “확장기업” (Expansion Business) offer and a list of services.